

2003 PMA Show에서의 디지털 카메라 출시 동향



미국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에서 2003년 3월 2일부터 5일까지 열린 PMA에서는 DSC가 카메라를 대표하는 성향으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으며, 메이저 업체들이 전원, 메모리, 프린팅(KIOSK) 등 주변사업으로의 확장을 꾀하는 움직임이 확연히 드러났다. 한편, 양적인 측면에서도 전반적인 35mm 카메라 시장의 쇠퇴는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카메라업계의 선진사를 중심으로 살펴볼 때, 디지털 카메라(이하 DSC)의 경우 대략 다섯 가지 정도의 트렌드를 꼽을 수 있었다.

첫째, 화소경쟁과 가격경쟁이 심화되는 추세이다. DSC 부분에서 가장 눈에 띄게 나타난 측면은 '화소 전이'인데 보급형 DSC 기종의 주류는 3백만 화소급이지만, 대다수 업체들이 5백만 화소급의 제품도 함께 소개하고 있었다. 이는 고사양 기종의 주류가 4백

만 화소가 아닌 5백만 화소로 자리를 잡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향후 화소경쟁과 이에 따른 가격경쟁이 지속적으로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두 번째 특징으로서는, 사용자의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 시키기 위한 '대화면 LCD'의 채택이다.

DSC를 35mm카메라와 뚜렷하게 구별짓는 특징 중의 하나는 무엇보다 LCD화면을 통해 자신이 촬영한 영상을 바로 확인하고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라 할 수 있다. 기술적 진보와 아울러 각 업체별로 가장 중점을 두어 개선코자 하는 사항도 이와 관련된 신소재, LCD 화소수, 선명도 등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어찌보면 당연한 제품 개발 트렌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금번 PMA에서는 LCD와 관련하여 크기가 커진 것은 물론 이터저너와 코닥(Kodak)사의 경우 OLED를 업계 최초로 채택하여 상당한 관심과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세 번째 특징은 동영상 기능의 강화이다.

DSC 촬영기능 강화 및 Convergence 추세를 반영하며 동영상 기능의 강화가 눈에 띄는 특징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MJPEG 형식이 아닌 MPEG 형식의 영상저장이 필요하며 VGA (w/30fps), LCD 해상도 (최소 11만 화소) 및 크기, USB 2.0을 지원하는 DSC 기능이 반드시 확

표 1. 2003 PMA Show LCD 관련 신제품 개요

회사명	모델명	화소수/광학줌	LCD Size
Casio	Exilim EX-Z3	3M/3X	2.0"
Fujifilm	Finepix F700	3M/3X	1.8"
Kodak	LS-633	3M/3X	2.2"(OLED)
Kyocera	Finecam L4V	4M/3X	2.5"

표 2. 2003 PMA Show 동영상 강화 DSC신제품 개요

회사명	모델명	MPEG	VGA	Max. fps	LCD Pixels	USB
Sony	DSC-V1 (5M/3X)	MPEG 1	Yes	16	123K	2.0
	DSC-P10 (5M/3X)	MPEG 1	Yes	16	123K	2.0
Kodak	DSC-P92 (5M/3X)	MPEG 1	Yes	16	123K	2.0
	DSC-P72 (3M/3X)	MPEG 1	Yes	16	123K	2.0
	DSC-P52 (3M/2X)	MPEG 1	Yes	16	61K	2.0
Fujifilm	DSC-P32 (3M/FF)	MPEG 1	Yes	16	61K	2.0
	Finepix F700 (3M/3X)	MJPEG	Yes	30	134K	1.1

보 되어야 사용자의 만족도를 상당부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1년 이내에는 DSC에 있어서 만족스러운 동영상 기능이 구매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대두될 것이 전망된다.

네 번째 특징으로서는 GUI (Graphic User Interface)의 편리성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를 꼽을 수 있다.

금번 PMA를 통해 소개된 일부 선진사 제품의 경우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고, 신속한 기능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GUI 부분에 대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업체별 특징을 잘 나타낼 수 있는 형태로 향상되고 있으며 보다 세련된 색상과 효율적 메뉴구성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듯하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서는 DSC와 관련된 다양한 주변 기기 분야의 발전이다.

대표적인 예로 프린팅, 배터리, 휴대용 저장장치 등을 꼽을 수 있으며, 프린팅의 경우 키오스크 (KIOSK)형태의 제품이 대거 소개되었고 기존 필름 메이커를 비롯하여 Sony, HP 등의 업체도 자판기 형

식의 프린팅 기기를 소개하고 있었다. 또한 배터리의 경우 기존의 DSC업체들은 배터리에 자사브랜드를 부착하여 DSC판매와 병행하는 특징을 나타냈다. 스토리지의 경우에도 기존의 단순 저장기능에서 탈피하여, LCD 모니터를 장착 또는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한 휴대용 저장장치가 소개되었고, 앨범기능도 수행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추세임을 보여주었다.

이 외에도 35mm카메라의 경우, 삼성테크윈을 비롯하여 Canon, Fuji, Pentax, Nikon 등의 업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신상품의 출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전 출시 기종인 Minor Change나 OEM을 통한 신상품 출시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 가운데 Canon에서는 기존의 Z Series와는 별도의 라인업인 U Series를 새롭게 선보였고, Aluminum을 이용한 Metal Housing을 채택하는 특징을 나타내는 한편, 틈새 시장을 겨냥한 Wide Angle Zoom도 함께 출시하고 있었다.



	<p>장재원 과장 <small>인공물도경로광학사립대학원장기초</small> 삼성테크윈 광디지털 시스템사업부 마케팅팀 기획Unit</p>		<p>봉기현 대리 <small>인공물도경로광학사립대학원장기초</small> 삼성테크윈 광디지털 시스템사업부 마케팅팀 기획Unit</p>
---	--	--	--